송원그룹, 금광기업 되찾을 길 열렸다

소유권 소송 승소로 지분 68.5% 확보

경영 복귀 절차 돌입…세운건설 "항소"

송원그룹이 금광기업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011년 10월 세운건설 컨소시엄에 인수된 금광기업에 대해 대주주를 상대로 한 소유권 소송에서 송원그룹이 승소한 것.

광주지법 민사 11부(최영남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송원, 송원문화재단 대표 등 9명이 금광기업 대주주인 세운건설 대표 등 5명을 상대로 낸 주식명의 변경소송에서 "해당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소송 액수는 주식의 51.5%에 해당하는 164억여원으로, 세운건설 컨소시엄이 주식 양도 대금 가운데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아 양도 계약이 무효라는 원고 측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앞서 송원은 세운건설 등을 상대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고경주 송원 대표이사가 가진 주식 17%를 포함해 송원그룹 측 옛 주주가 금광기업 주식의 68.5%를 갖게 돼 경영에 복귀하는 길이 열린다.

송원은 변호사와 협의를 통해 주주총회를 열고,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등 조만간 경영 복귀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전남 중견건설사인 금광기업은 지난 2010년 5월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며 세운건설이 1000억원 대의 인수자금을 들여 인수를 완료했다.

세운건설은 2011년 건진건설, 한솔건설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 시공능력 평가액 기준으로 11배가 넘는 규모의 금광기업을 인수하고 지난해 2월 법정관리에서 벗어나 화제를 모았다.

송원 측 관계자는 "세운건설 측이 주식양도대금 가운데 계약금 50억원을 지급한 뒤 나머지 대금을 내지 않아 소송을 준비했다"며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는 동시에 본격적으로 경영 복귀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운건설 측은 당장 항소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주간 증시 포커스

경기민감주 비중 확대…해운주 주목

국내증시 측면에서 특히 주목할만한 부분은, 8월 들어 순매도로 전환했던 외국인이 다시금 순매수 기조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전주 외국인은 6760억원 순매수를 기록했는데, 이에 힘입어 월간기준으로도 4059억원 순매수로 전환했다.

국내증시는 양적완화 축소 우려가 크게 부각되었던 지난 6월과는 차별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미국 중심의 경기회복세가 유럽과 중국 등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일부 선진국과 여타 국가 간에 나타나고 있는 경기불균형이 완화될 개연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양적완화 축소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락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선진국과 이머징 증시 간의 밸류에이션 갭 축소과정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그 이유다.

7월 들어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는 유럽과 중국의 경기지표는 하반기 글로벌 경기회복의 신뢰감을 높이며 미국 발 양적완화 축소 우려를 완화시키고, 국내증시의 하방 경직성 강화에도 힘을 실어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양적완화 축소 우려가 지난 6월처럼 국내 증시에 또 다시 쇼크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최근의 글로벌 경기회복 기조를 반영한다면 이에 따른 변동성 장세가 나타날 경우 경기민감주 중심의 비중확대 기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유로존과 중국의 경기 바닥 탈출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업황 모멘텀과 실적모멘텀을 고려한 종목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양호한 펀더멘털을 유지하고 있는 자동차와 최근 수주 증가와 함께 업황 회복이 나타나며 실적모멘텀을 확보해 가고 있는 조선업종이 대표적이다.

7월 유럽 주요 5개국의 자동차 수요는 전년동월대비 4.6% 증가하며, 2011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또 중국의 7월 승용차 판매도 양호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내 자동차 관련주들에 대한 비중확대 전략이 유효한 시점이란 판단이다.

조선업종은 올해부터 선박 발주량이 의미 있게 증가하면서 주가 역시 단기적인 상승세를 보인 바 있다. 향후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어 최근의 가격조정을 비중확대 기회로 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함께 업황부진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낮아 극단적인 국면에 머물러 있으나, 최근 글로벌 경기회복 기조 강화 속에 주가 바닥권 탈피 가능성이 높은 철강, 비철금속 등 소재 관련주와 유럽 및 중국 경기회복시 수혜가 예상되는 해운주에 대한 관심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박 종 모

〈신한금융투자 수완지점 PB〉

기부하고 아이스크림 먹고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18일 무더위 탈출을 위한 이벤트로 100원 이상을 기부하면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주는 행사를 열어 고객들에 호응을 얻었다. 이날 기부받은 돈은 어린이재단을 통해 형편이 어려운 결손가정에 전달할 계획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 바꾼다

고용·물가·소득 전면개편

실업자가 넘쳐나는데 한국의 실업률은 왜 이렇게 낮을까. 물가가 이렇게 높은데 물가 상승률은 왜 1%대에 머무를까.

통계청이 이런 고질적인 질문에 해명 대신 해결책을 내놓기로 했다.

1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통계청은 고용과 물가, 소득 등 주요 통계 개선방안을 만들어 국가통계위원회에 상정하고 이르면 올해 말부터 새로운 통계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과 통계청이 제시하는 통계에 상당 부분 차이가 있어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통계청은 먼저 공식 실업률을 보완해줄 수 있는 실업률 보조지표를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하는 국제기준을 준용해 만들어 내년 11월부터 기존 실업률과 함께 공표하기로 했다.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물가와 괴리된 통계청 물가도 손을 보기로 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상반기 내내 1%대 초반에 머물렀지만 국민은 고물가에 대한 어려움을 계속해서 호소해왔다. 2010년과 2015년 등 5년 주기로 이뤄지는 물가 가중치 개편을 2012년 기준으로 한번 단행해 이런 괴리감을 줄이기로 했다. /연합뉴스

삼성 스파클링 냉장고 美 컨슈머리포트 평가 1위

삼성전자의 스파클링 프렌치도어 냉장고가 전 세계 4도어 냉장고 가운데 최초로 추천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의 권위 있는 소비자 잡지 컨슈머리포트는 18일 1위를 차지한 삼성 스파클링 냉장고에 대해 "이제껏 성능 실험을 한 4도어 냉장고들은 추천명단에 이름을 올릴 만큼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삼성 제품은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다"고 칭찬했다.

컨슈머리포트는 이 냉장고가 온도조절 기능이 훌륭하고, 독립 냉각시스템을 이용 음식물이 신선하게 유지된다는 점과 에너지 효율성이 뛰어나고 유지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부각시켰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전세자금 대출 '확대'

은행권, 이번주부터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내주부터 줄줄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미친 듯이 오르는 전세가로 인해 이미 급증세인 전세자금 대출이 더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와 농협은행은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일반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이르면 19일부터 종전 1억6600만원에서 2억2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신한, 우리, 국민, 기업은행은 23일께 확대할 계획이다. 대출 한도의 상향 조정은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주택금융공사가 동일인 보증한도를 확대한 데 따른 것이어서 은행별로 내용이 다르지는 않다. 현재 은행 전세자금 대출 가운데 약 80%는 주택금융공사 보증 상품이다. 여기에 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농협 등 6개 시중은행은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렌트푸어(전세 보증금 등 주택 임차비용으로 고통받는 사람) 지원 후속 조치로 도입된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 상품도 오는 23~27일 출시한다.

이 상품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양도해 우선변제권을 주는 형태로 담보력을 강화한 대출로, 임차인(세입자)이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이고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일 때 이용할 수 있다. 앞서 은행들은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하는 일반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이미 지난 7월 종전 최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렸다. 은행 전세자금 대출은 지난 7월말 현재 25조8000억원으로 올해 들어서만 2조4000억원이 이미 늘었다. 2년전과 비교하면 10조7000억원(70.8%)이나 증가한 것이다. /연합뉴스

카드 대출 금리 '인하'

정부, 2금융권 모범규준 도입

카드, 캐피탈, 보험,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대출 금리가 연내 대폭 인하될 전망이다.

제2금융권 대출금리에 대한 등급별 비교 공시가 강화되며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이 모든 업종에 적용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제2금융권 대출금리 산정 모범 규준'을 마련해 카드사와 캐피탈사, 신용협동조합, 저축은행, 보험사의 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 모범 규준에는 대출 자금 조달 원가와 업무 원가, 신용 원가, 영업 마진 등이 반영되고 대출 금리 산정 및 운용에 대한 내부 통제 절차까지 규정된다.

경기 불황 장기화로 가계 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하는 등 빚더미에 오른 서민이 급증한데다 최근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가계발 금융 대란까지 우려되자 금융감독 당국이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최근 대부업이 공격적 영업을 선언하면서 최저 금리를 연 10% 중반대까지 내리면서 저신용자 고객 시장을 급격히 잠식하고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했다. 대부업은 제도 금융권이 아니므로 금융감독 당국으로서는 통제가 안 되기 때문이다.

현재 시중은행의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연 4~10%지만 제2금융권인 카드사의 카드론은 최고 연 28%, 현금서비스는 최고 연 30%에 이르고 있다. 캐피탈사의 신용대출 금리는 평균 연 20% 중반대다. 저축은행의 가계 신용대출은 최고 연 35.9%며 신협은 가중평균금리가 연 7~10% 수준이다.

제2금융권 금융사들은 새 정부 출범 후 일부 금리를 내렸으나 금융감독 당국은 투명성이 부족하며 금리 산정이 주먹구구식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연합뉴스